

청계천과 한강

Cheongnyecheon and Hangang

current view

고가도로와 복개도로에 가려 사라졌던 청계천이 복원되어 맑은 물이 흐르게 되자 전 국민이 야단법석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청계천이 되살아난 지 58일 만에 청계천에 구경 온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자랑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성공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문화유산이 훼손되었고, 한강물을 모터로 끌어 올려 흘려보내는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생태계 복원에도 실패했다고 폄하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청계천은 길이가 짧아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기 때문에 깊이 40cm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청계천에 물이 흐르자 곤충과 물고기가 돌아왔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도 되돌아 왔다. 청계천을 따라 바람 길이 되살아나 대기 질이 향상되었고, 주변의 온도도 낮아져서 이른바 열섬현상을 완화시켰다고도 한다. 청계천은 도심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시민들에게는 좋은 쉼터가 되고 외국인에게도 좋은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차체에 시내에 있는 31개 하천 모두를 복원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인기 상승에 고무되어 경부운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또한 한강의 개발을 시사하였다고 한다. 건설회사 출신답게 대권후보로서 건설 사업에 승부를 걸 모양이다.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도 너도 나도 한강개발을 언급하고 있다. 한강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수상교통을 활성화한다, 강남·북 연결 보행자 전용다리를 만든다, 중랑천을 서울의 세느강으로 만든다 등등. 한강은 1980년대에 진행된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최대의 변화를 맞을 것 같다.

낮에 보는 한강은 강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볼품이 없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한강을 가로 지르는 26개의 다리는 각각 특성에 맞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특색 있는 야간조명을 설치했다. 앞으로 워터스크린(얇은 물방울을 스크린으로 이용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한강변 여러 곳에서 야간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영상 쇼를 보여준다면 한강은 세느강 못지않은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물을 바라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미국의 조경 학자 울리히는 물로 가득 찬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 스트레스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바 있다. 물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자아 재충전, 스트레스 감소, 적대적 상황에서의 공격성 완화 등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는데, 이런 효과는 불과 4~6분만 물을 바라보아도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복원된 청계천은 도시인을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5일제 실시 이후 주말에는 도로가 막혀서 서울을 벗어나 바닷가나 명승고적을 방문하는 일이 더욱 힘들어졌다. 그래서인지 주말에 서울



청계천 © 진효숙

근교의 가까운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한강을 잘 가꾸기만 하면 서울시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을 방문하고 한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울은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강은 행주대교 아래에 있는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 때문에 강폭이 넓어지고 유속도 느려졌다. 런던의 템즈강이나 파리의 세느강을 기본 사람은 우리의 한강이 얼마나 넓으며 유유히 흐르고 있는지를 실감할 것이다. 더욱이 한강에는 3개의 작은 섬이 있다. 서울시 생태계보전지역 제1호로 지정된 밤섬은 세계적인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서 지난 3년 간 멸종위기의 야생종 매와 천연기념물 원앙, 황조롱이를 비롯해 큰기러기, 가창오리, 참매 등 조류 77종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제2한강대교가 지나가는 선유도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져 있고, 제1한강교가 지나가는 노들섬은 서울시에서 5,000억원을 들여 문화예술센터로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심포니홀, 청소년야외음악당 등이 들어서게 되면 노들섬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어의 제6편 <옹아편> 21절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知者樂水 仁者樂山)’

즉 지혜 있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처럼 느리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자도덕경 제8장에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선약수 (上善若水)’ 즉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처럼 사는 삶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노자 역시 물을 칭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물처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 물으면 사실 대답이 막힌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조금하지 않게, 느리게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인의 삶은 느낄 수가 없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터넷이 보급되어 정보화 시대가 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더 바쁘고 더 경쟁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여 지난해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보니 올해의 목표는 10% 상향 조정되고 사장님은 시무식에서 올해에는 더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라고 훈시를 한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달력에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서 휴일이 없다고 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본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유유히 흘러가는 강의 모습은 아니다. 물은 서두르지 않는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물은 바쁘다고 뛰지 않는다. 그렇지만 멈추지도 않는다. 강물은 느리지만 쉬지 않고 바다라는 목표를 향하여 흘러간다. 그야말로 물처럼 흐를 뿐이다.

청계천과 한강이 잘 개발되어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물을 바라보고 물과 친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